

시론

퇴임 후 삶의 화두 : 존재 이유 찾기



박 남 기
광주교대 교수

지금 필자에게 가장 큰 화두는 퇴임 후 무엇을 가질지, 보람,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퇴임 후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일상 속에서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퇴임 후 공허함을 느끼는 대표적인 사람의 하나로 대통령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가고, 아름답던 웃은 누더기로 변해 혼자 남겨진 신데렐라가 된 느낌이라던 미국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동일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느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나이 들어 정년 퇴임할 경우, 몇 달간은 그동안 일에 지친 심신을 쉬게 하고, 버킷리스트를 지우기며 재미있게 살 수 있다고 한다.

회에 보탬이 될 보람 있는 활동을 하며 의미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지내며 작물과 화초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활동을 통해 충분히 보람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같다.

로마 시대의 문인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노년이 되면 육체노동은 어렵더라도 세상과 지혜는 나눌 수 있다.

社説

‘사법부 판결보다 후퇴한’ 5·18진상조사위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사법부 판결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군·경 피해 사례 중 하나인 ‘권용운 일병’ 사망에 대해 2022년 9월 1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계엄군 장갑차의 후진으로 무한케도에 깔렸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운전한 장갑차에 들이받혀 죽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기술한 것 등을 들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5·18을 왜곡·편향하는 망언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5·18 진상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그 전제로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될 진상규명 보고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불순세력 폭도라는 가짜뉴스가 40년이 넘도록 퍼지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 6월 중 최종보고서가 나온다. ‘미완’으로 남아선 안 된다.

광양만권 일대 동북아 LNG 허브 구축의 상징성

여주시 묘도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다졌다.

무엇보다 묘도는 입지적 강점이 뛰어나다. 글로벌 LNG 거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며,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여수 국가산단과 인접해 있다.

터미널의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력하고 있는 전남도가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심사시켰다.

천연가스 허브터미널(터미널) 설립 후 2021년 부지 매입 및 기초공사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까지 받았으나 고금리로 유치가 어려워 지연된 바 있다.

아울러 환경적 확장성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기존 석탄에서 저탄소 LNG 발전으로 점진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여수·광양만권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 의지대로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유치와 함께 광양만권 일대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이뤄져야 한다.

의정칼럼



채 은 지
광주시의회 의원

대통령이 사람을 빼돌렸!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대통령실 핵심 참모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썼던 기자가 정보사령부 군인에게 화갈로 테러를 당했던 ‘화갈테러 사건(1988년)’을 언급하며 언론을 압박했다.

또한, 해당 자리에서 그는 5·18과 관련해 “훈련받은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며 북한 배후설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갑압이나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간의

한국 정치의 현주소 ‘불공정과 몰상식’

대통령실 행보와 모순되는 참으로 공색한 입장 표명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 가운데 하나인 ‘공정과 상식’이 떠오른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공정과 상식이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설명돼 있다.

그런데 출범 2년이 되지 않은 이 정부 앞엔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원칙에서 벗어난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일들이 계속 쌓여만 간다.

‘불공정과 몰상식’ 키워드는 비단 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의 몰상식한 ‘막말 대결’ 또한 한국 정치의 수준을 의심하게 만든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는 인제’라는 성일종 의원, ‘나고 예찬’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예찬 후보(공천 취소),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공천 취소), ‘백성들은 봉건적 조건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는 조수연 후보 발언 대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재명 당대표의 ‘2찍’ 발언, ‘노무현은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하한 양문석 후보, 김준혁 후보의 “(박정희 대통령은) 밤마다 여자애들 끼고 시바스리갈 쳐먹고” 등의 막말, 정봉우 후보(공천 취소)의 ‘DMZ 목발 경품’ 발언까지.

국단적 발언의 통쾌함은 단지 그들 팬덤에 속한 일부에게만 해당하고, 이를 더 자극적으로 키워 잇속을 툴특히 챙기는 일부 유투버들에게만 반갑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에게 정치인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정치 무관심을 넘어 ‘정치 혐오’를 불러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은 말 밖에 가진 게 없지만, 말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듯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얼룩진 총선은 어느새 공천 막바지에 이르렀다.

독자투고

청소년 도박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사이버 도박진단 조사에 따르면 도박게임을 처음 경험한 때가 11세, 즉 4학년인 것이다.

청소년이 도박에 처음 접하게 되는 계기는 대부분 친구권유이다.

청소년들 불법도박, 이제 정말 근절돼야

접속 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이용가능하다.

이들이 주요 도박을 최초 접하게 되는 사이트는 무료 영화, 웹툰 사이트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2차 피해문제다.

최근 5천억 원대 대형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원들이 검거되었는데, 이중 총판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다.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단속강화 및 각 기관에서 도박근절을 위한 예방 치료 등 대책방안이 시급한 때이다.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단속강화 및 각 기관에서 도박근절을 위한 예방 치료 등 대책방안이 시급한 때이다.

그래픽 뉴스

중장년 근로자 10명 중 3명 비정규직...OECD 최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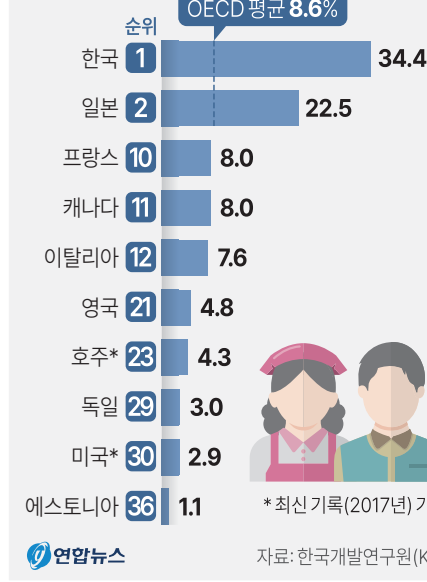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오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OECD 주요국 중장년비정규직비중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기준 55-64세 근로자 중 임시고용(기간제 등) 비중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